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6)

명령이기도, 부탁이기도, 답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잡으면 언약이 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창세기 3:15입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주셨으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21 피 제사(가죽옷)입니다. 이 예배를 지속하면 창세기 3:15에 약속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고, 약속된 대로 뱀의 대가리가 깨지고, 인생은 회복되고, 운명과 저주, 재앙은 정복됩니다.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정확함을 넘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인생 전체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수준입니다. 그게 예배의 권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기도보다 그림이 큽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답이 되는 말씀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15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되어지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증거를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완전한 답이고,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평생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엄히 명령한 것입니다(딤후 4:2).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면 인생은 살아납니다. 저주와 운명을 정복하고, 개인이 말씀 운동하면 개인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문제가 예배를 통해 치유 받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많이 연약하나 하나님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라 하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많은 행하심과 죽으심과 약속의 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가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겪은 절망과 허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웃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옛날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인지, 내게 정신 문제가 왔다는 게 사실인지,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 난리가 났지만 우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그저 돌아가고만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한참이나 멍하니 보고, '너는 좋겠구나. 가을에 죽어도 봄에 다시 나오는 꽃이지만 나는 다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게도 답이 없는 운명과 저주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과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정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정신병원에 있진 않았을까. 만약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남미 끝까지를 언약으로 잡고,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와 함께 이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천지 차이요, 천지 개벽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근접하여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3직입니다.(참 선지자 - 길, 참 제사장 - 해방, 참 왕 - 권세) 이 3직으로 나의 문제에 도전을 하고,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선포하고, 뱀의 대가리는 박살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내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현장에서 잘 안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 없이는 복음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구원받았으나, 현장이 없다면 그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성취되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정말로 인간에게는 운명이란 게 있고, 진짜 귀신이 있는가? 정말 사탄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이 모든 문제가 정말 영적 문제인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질문들이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원인을 알면 답을 알 수 있으나 원인을 모르면 내용과 방향이 나오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원죄를 말한 곳도, 인간의 운명을 말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사탄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존재를 기록한 책은 있겠으나 사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정신병, 마약이 이것들로 인한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죽이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 외에 말하는 세상의 진리들, 모든 이론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도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과는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속이는 것들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만 해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못 받는 것은 내 생각이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된다는 것도 속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기록 되어 있는 말씀이 답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것이 나타납니다. 종합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대가리가 깨진다는 창세기 3:15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고, 해, 달, 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으로는 안 되는 문제를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대가리를 깨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계속 받을 만큼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도 밥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고난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이고, 답을 행하는 칼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칼(무기)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칼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무기를 받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